

# 한국당 민선 복귀...국회는 오늘부터 격전장

### 박성진 장관 후보 청문회...종교·뉴라이트 사관 등 집중 검증 11~14일 대정부 질문...방송 정상화·전술핵·복지 실현 예고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보이콧 철회로 11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11일에 이어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총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엄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

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당의 공영방송 개혁 관련 내부문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부각시키고 대부정책은 '실정'으로 규정된 뒤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까지 부른 공영방송 개혁 문제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최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음에도 국회 보이콧 철회를 결정할 것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여당 내부에서 나온 방송개혁 관련 문건을 들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으로 당 지도

부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개혁의 핵심은 지난 정부에서의 공영방송 사측의 권인유착과 부당노동행위에 있다며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인사난맥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불붙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당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다른 야당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아울러 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화'를 최우선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야당의 공세와 이를 엄호하는 여당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재원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아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적자가 우려되며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에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보이콧 철회 여부 및 국회 복귀 시기는 11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호남 챙기기'

### 지도부 15일 광주·전남서 예산 당정협의회... 호남특위 가동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오는 15일 광주와 전남에서 당정협의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호남 챙기기'에 나선다. 국민의당이 내년 호남지역 사회간접예산(SOC) 삭감과 관련해 연일 '호남출대론'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서자 '실력 행사'에 나서려는 것이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6~10일 광주·전남 민심 투어에 대응해 오는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광주·전남을 찾는다. 이날 오전에 전남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예산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또 그동안 잠정 휴업 상태였던 당내의 호남 특위도 본격 가동한다. 내년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 국고 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국회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는 사업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호남 특위 소속 당직자들이 시도당은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미에 대표가 호남특위위원장이다. 그동안 물 밑에서 호남 예산에 대해 챙기고 대비해 왔다"며 "일부 공석이 된 자리를 보완하고 예산 국회를 앞두고 호남 특위를 본격적

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호남 챙기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호남 인사 증용으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3명에 불과, 당내에 호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지도부의 양향자, 이형석 최고위원도 원외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공천 등을 고려해 예산 문제와 관련, 중앙당에 강력한 문제 제기 등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다 행보'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호남 민심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호남 현안 사업들과 관련,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기 효과'를 내세운 국민의당의 공세와 맞물려 호남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 바른정당 새 지도부 '속도'

### 주호영 "총의 빨리 모아야" 비대위·권한대행 놓고 분분

이해훈 대표의 사퇴로 선장을 잃은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른 것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총의를 빨리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며 "오늘 의견을 듣고 가다가 잡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주 권한대행 주재로 최고위원 간담회를 하고 다수의 의원이 참석하는 만찬도 했다. 또 다음 주 초 의원총회 후 1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연석회의에서 새 지도부 구성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헌 사무총장은 "전국 각지 의회위원장들이 모이는 연석회의에서 총의가 결정될 것"이라며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저조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국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향후 전당대회를 열 때까지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새 지도부 구성 논의의 과정에서 상당한 파열음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순천시 동외동 웃장마을을 찾아 전어를 들고 상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호남 지지 다시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박5일 방문 일정 마무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박 5일의 광주·전남 방문 일정을 10일 마무리했다.

이 기간 안 대표는 광주에서 3일간 머무르며 '호남 출대론'에 힘을 실었고, 이후 이틀간 장흥·해남·광양·여수·순천 등지를 순회했다.

안 대표는 10일 순천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순천웃시장(북부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만났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남 동부권에 제 처가인 여수가 있다. 제 아내 고향인 순천이 있다"면서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제 많은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 또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서, 지지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8일 호남 SOC 예산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무안군에서 가진 지역 광역·기초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호남 SOC 예산"이라면서 "웬만큼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조직 정비...사고 지역위 '주목'

### 전국 36곳 중 광주·전남 5곳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고 및 권한대행 지역위원회 처리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설치·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사고당부(위원장) 공석인 시·도당 및 사고지역위(위원장) 공석인 지역위원회 정비, 당무 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지점은 지역위 정비다. 현재 전체 253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조강특위 정비 대상은 사고 지역위와 지역위원장이 직무대행인 곳 등을 포함해 36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사고 지역위원회는 '나주·화순'으로, 지역위원장이었던 신정훈 전 의원은 청와대 농어촌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직무 대행 지역

위원회는 광주 광산 을과 전남 순천시, 여수 을 세 곳이다. 여기에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역구인 '해남·진도·완도'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날 말까지 해당 사고 및 권한대행 지역위에 새로운 위원장을 공모해 임명할 것인지, 기존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다.

기존에는 공직을 이유로 지역위를 비운 경우 기존 지역위원장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사실상 대리인을 내세운 대행 체제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온다.

전면 재정비로 갈 경우, 전직 위원장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당장 내년 공천에서 입김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다, 새로운 지역위원장과 차기 총선 공천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각종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관광온천지구 K호텔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